

2017년 5월 29일, 성산을 삼달1리 삼달1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고형근(남, 1937년생, 성산을 삼달1리)

• 줄거리: 도깨비를 잡아서 보니 우장 코에 말뚝봉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.

[제보자] 도체비는요. 그러니깐 한 칠십 년 전에 우리 동네에도 도체비가 여기저기 있어났덴 험디다. 그 도체비 심어났덴 허는 사름도 있고, 도체비 심어보니까는 우장 코에 말뚝봉이 하나 있더라. 그런 거 전설적인 내용인데. 도체비라는 것을 많이 들언.

도체비란 것이 여기 가면은 으스스려 험디 가면은 있고, 또 어디 가면은 불. 불 벨롱벨롱 허는디, 아무 눈엔 안 보이고 보이는 사름만, 저거 도체비엔 허는디, 지금 말허든 반딧불처럼 그런 것이 왔다갔다 허다가 하나 잇다가 두 개 세 개 헛다가 네 개 헛다가 멀리 벌어졌당 또 하나로 모아지고. 이것이 도체빛불인데,

도체빛불도 그러고 헛게비는 오유월 마 때에 캄캄하게 못 볼 에 사름이 다니 다 보면은 그슨새라고 헛어이 그 막 그 이상헌 것처럼 보이는 그슨새란 것도 잇는데.

어느날 저 그 사름 이름 뭐였더라. 잊어비연. 그런 정도데 얼핏 생각에는 안 나는데, 도체빛불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, 어중헌 날 어중중헌 날 도체빛불 데 헤. 지금은 그런 거 없주만은, 도체비 보레 가자 헝 가면은,

“저 도체비 불 아니냐.”

허주만은 안 보이는 사름은 전혀 안 보여.

도체빛불은 어떻 엇어지냐든 돌궤 불 켜면은 도체빛불이 엇어진다. 그렇게 헤난 말은 들어봤어요.

- 핵심어 : 도체비, 도체빛불, 그슨새, 헛게비, 돌궤, 귀신, 도깨비, 돌가루